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6
Jun. 2022
Vol.10 No.06

통권 94호

- 교육부 VBS
- 주안예사역 세미나
- 목장 / 코람데오 소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EM 부흥회 강사 제리 하먼 목사가 벨리채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Paul Yang 기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

■ EM 부흥회

주안예교회 EM이 처음으로 주최한 '역동적인 믿음' 부흥회는 페이스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 총장이자 그레이스바이블메티스트교회 담임목사인 제리 하먼 목사와 함께 4일간 성령충만한 집회로 진행됐다.

이번 부흥회는 주안예교회의 1세대와 2세대의 연합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까지 부흥

의 불씨가 퍼져가길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한 자리였다.

목요일 밤부터 시작된 저녁예배는 열정적인 찬양과 깊이있는 메시지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었다. 특별히 하먼 목사께서는 믿음 생활 가운데 오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과, 인내를 통한 열매가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다.

토요일 오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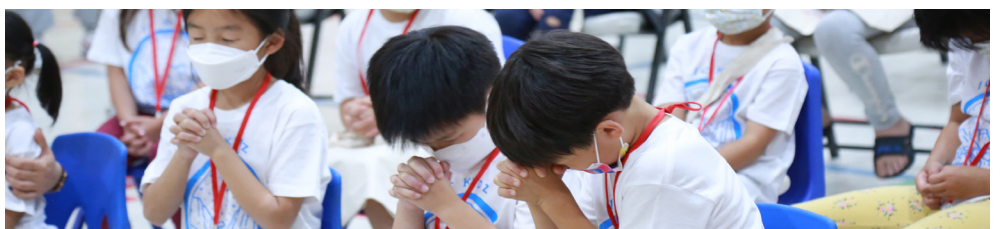
하나님, 구원, 기도, 부르심, 등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하먼 목사께 직접 묻고 답을 듣는 귀한 자리를 가졌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하먼 목사가 자신의 간증을 공유했다.

첫날부터 EM뿐만 아니라 KM성도들까지 참석한 연합 부흥회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욥 1:1-22)'라는 제목의 주일설교로 마무리 됐다. <관계기사 6-7면> | Monica Kim 기자 |

■ VBS

팬데믹으로 2년간 쉼을 통해 진행됐던 VBS(여름성경학교)가 지난 6월 12일부터 OC·벨리채플에서 열렸다. 예배 중 기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관계기사 3·5면>



이해와 훈련 통한 효과적 소통·바람직한 관계

■ 주안에서

요 13:34-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소통과 관계 세미나라는 제목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었다.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통이고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6월 4일 아침 8시 벨리 친교실에 150여명의 주안예교회 리더들이 모였다. 강사 Laura Park 은 우리 EM Director로 1.5세인데 한국말의 부족함을 제스처와 표정으로 잘 소통해 주었다.

의사소통의 힘은 관계 안에서 뜻, 생각, 정보, 감정을 언어와 비언어적 과정을 통해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어 가는 기술이다.

간단한 설문조사로 우리는 각각 다른 기질을 가졌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다.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질에 따



라 내가 싫어하는 일도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6월 18일 오전 8시에 벨리 예배당에는 참석자들 130명이 먼저 자리에 앉아 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주안예교회에서 한 번의 강의로 익숙해진 오부운 HIS University의 부총장께서 강단 위로 올라오셨다. 오부운 교수님은 이번에는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6명의 교수단을 모시고 강의와 소그룹 미팅을 통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우리

의 언어와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관계는 멀리 있는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관계를 맺어가는 통로는 감정의 표현인데 우리는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연습할 기회도 없었다.

오히려 유교적 교육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아야 한다는 가정 교육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부, 자식 사이에 듣고 말하기의 기술이 없었다. <10면에 계속> | 이예스터 기자 |

페루 빈민가 예배처소 마련, 현지 전도사들 지원

■ 해외선교 확대



주안예교회의 해외 선교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멕시코와 아프리카 세네갈에 이어 지난해 캄보디아, 네팔, 니카라과, 중동 국가 선교사를 지원해 현지 복음전도에 동참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고대 잉카문명의 발상지인 페루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했다.

수년간 개인 자격으로 페루 선교를 하고 있는 김현권 목사가 최근 현지를 방문해 수도 리마에서 50Km 떨어진 빈민지역 Pachacutec Cerro Cachito(빠짜꾸텍 세로 까치또)에 위치한 장애인 살롬교회가 예배와 나눔 처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을 돌아보았다. 현재 전기와 화장실도 없는 마을회관을 매주 토요일 2시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동네 행사 때는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현지 전도사들

을 전해 듣고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인근에 위치한 1천 평 방피트 크기의 허름한 건물 공간을 맡김하게 수리해서 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전도와 봉사,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페루인 전도사 4명과 신학생 2명의 사역을 지원해 이들이 장차 개척교회 지도자로 훈련받도록 했다.

이들은 아귀다-페르난도 부부와 로사, 이망, 윌리엄(이상 전도사)이며, 신학생 로사와 레베카이다. 페루 내 복음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

| 조용대 기자 |



‘나도 요셉처럼 될래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꿈을



■ VBS

OC채플을 시작으로 6월 12일 주일부터 3일간, 그리고 벨리 채플에서는 17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었다.

OC 채플에 모인 20여 명의 아이들과 EM 과 ICY에서 온 십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벨리 채플에 40여 명의 아이들과 EM, ICY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 액티비티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겁고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22년 VBS의 주제는 'Monumental'로 구약성경의 요셉의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주제별로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요셉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5면에 계속>

| 류명수 기자 |

■ 멕시코 단기선교 사전 현지 답사

3년 만에 재개된 ‘2022 멕시코 단기선교’를 위한 사전 답사팀이 지난 6월 15일 현지를 다녀왔다. 이번 단기선교팀을 이끌 김현권 목사와 윤종화 장로 김경배 장로가 동행했고, 샌 비센테에서 루디 로페즈 선교사를 만나 구체적인 단기선교 목표와 스케줄을 조율했다. 이번 단기선교에서는 현지인들을 섬기며 선교를 배우는 참여자의 교육과 현지인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 봉사 사역 등 2가지 목적의 조화에 힘쓰도록 했다. 7월 31일~8월 3일까지 3박 4일간의 단기선교에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많은 기도와 동참을 바란다.

| 김경배 장로 |



■ 밸리유스오케스트라 13회 연주회

3년만에 되찾은 라이브무대 가슴 축축한 감동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마음대로 누리고, 만나고, 소유해 오던 것들에 제한이 주어지고 금하여지는 상황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시대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대서사시가 새로이 쓰여지고 있는 듯 우리들은 그저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금지되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VYPO(Valley Youth Philharmonic Orchestra)인들 달리 방법이 없어 "줌" 으로 계속 연습하고 연주회도 지속적으로 해왔더니 참 대단한 인내와 끈기로 13회까지 이끌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열리는 13회 봄 정기 연주회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고 단원들도 더욱 활기차 보이고 구자형 단장님께서도 조금은 상기된 어조로 소감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았다.

마켓이나 레스토랑 어디를 가든 클래식한 뮤직이 흘러나오는 곳이 별로 없는 미국에서의 삶에서 오랜만에 청소년들의 신선한 콘서트를 즐



길 수 있었던 주일 저녁의 낭만이 무척 새롭고 행복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연주회가 우리 "주안예교회"에서 거행되고 그 단장님이 우리 교회의 구자형 권사님이라는 사실 또한 자랑스러웠다.

아울러서 그 외동 따님이 미국에서 음대 교수가 되기까지 뒷바라지하셨고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계신 어머니 구용순 권사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하거나 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하버드, 예일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사회에 나가서 "어느 문을 열어 주시고 누구의 손을 잡게 하시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구자형 교수님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 감사와 경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싶다. | 김선희 기자 |

■ OC채플 드림목장

젊은 두 집사님의 따뜻한 섬김에 '축복을'

6월 둘째 주일에 OC 드림목장을 인근 공원으로 초대한 조원, 임병재 집사님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날인데 교회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들과 어른들을 섬기겠다고 자발적으로 드림목장 목자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만찬이었다.

OC 에 드림목장이 생기고 나서 주위의 섬김으로 늘 풍성하게 주일을 즐기고 있었던 드림목장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야외로 초대받아 갈비 바비큐를 손수 구워 대접하는 두 가정의 섬김이 아주 귀해서 앉아 받아먹는 일이 감사하고 송구스러웠다. 준비된 음식도 정성과 철저함이 읽혀지는 골고루 준비된 식탁이었다. 후식으로 준비한 과일까지 잘 차려진 만찬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접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대접만 받으니 죄송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공책을



저희가 받으오니 주님께서 저들 가정에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는 대접받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기억하셔서 백배 천배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교회의 어른까지 챙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주던지요! 우리는 주안예교회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젊은 가정들이 또 이같이 대접받아갈 신앙의 전통이 주안예교회 안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 이예스더 기자 |

사랑과 웃음이 가득 넘친 ‘어린이 천국잔치’

〈3면서 계속〉 Day1 Bible Point: “God loves you and He is with you everywhere”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항상 동행하셨고 요셉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있었다고 배웠다.

Day2 Bible Point: “God is in Charge”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돌보았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Prime Minister가 되면서 한 국가를 돌보게 된다. 요셉은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곳에 놔두시며 국무총리에 필요한 모든 스킬을 배우고 연습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 시키신다고 배웠다.

Day3 Bible Point: “God is Surprising”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음식을 사러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며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밸리채플 IC KIDZ 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서동관 집사님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3년 만에 교회에서 VBS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특히 ICY 와 EM에서 제니퍼 전도사님을 도와 모든 준비와 진행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고,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성하고 사랑이 가득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즐겁고 환하게 뛰고, 배우고, 만들며, 찬양하는 아이들과 봉사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Staff들을 보면서 천국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VBS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전해 주셨다.

OC채플에 3학년 지후 어머니, 이정은 집사는 지후가 너무 재미있는 VBS였다고 얘기했다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재미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를 전해 주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섬겨준 학생 봉사자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학부모님들이 마련한 CGV Gift Card



도 준비해서 학생 봉사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OC채플의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정성으로 아이들의 식사를 섬겼다. 권사님들도 오셔서 함께 봉사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 가운데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

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년간은 줌으로 여름 성경 학교도 진행되었었는데, 올해는 모두 함께 모여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이러한 추억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본다.

■ EM Revival: Insights from the Book of James



God uses Testing for Enduring and Genuine Faith

On June 24th, Dr. Harmon opened the "Dynamic Faith" series with a message on how God tests for genuine faith and how we can pass our tests of life.

1. Fact of Testing: Faith that cannot be tested isn't true faith.
2. Forms of Testing: Tests vary in form through God's customization for us.
3. Force of Testing: Tests come unexpected, swiftly and savagely.
4. Facing of Testing: Face it and count it as joy for opportunity to advance.
5. Fruits of Testing: Perseverance and enduring strength and ability to run to God.

Thursday's "What To Do When You Are Overwhelmed" was on four important things to do when we are overwhelmed by a trial or crisis.

1. Ask God for Wisdom: God gives freely without finding fault to all who ask



without doubt.

2. Recognize God is Wisdom: Wisdom comes only from above; out of His mouth com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3. Count Your Blessings: The blessing of salvation makes us joint heirs with Je-

sus Christ.

- 4: Look Forward to the Reward: The Lord promises the crown of life.

Dr. Harmon gave insight into three kinds of faith during Friday evening's revival, prompting reflections on only one being true saving faith.

1. Dead Faith: People who say they believe but only say with their lips.
2. Demonic Faith: People who say they might not have works to back up their faith but that they know how they feel in their hearts. They generate a lot of heart but have no light.
3. Dynamic Faith: True living faith is not only intellectual and not only emotional. True faith is also volitional (mind, heart, and the will).

Ending Reflection: Will you obey God when a trial comes that defies human reason and logic? | Monica Kim |



ICCC EM hosted "Dynamic Faith" was a 4-day, spirit-filled revival with Dr. Jerry Harmon, President of Faith Theological Seminary and Senior Pastor of Grace Bible Baptist Church. It was one of a kind as evident by the intergenerational turnout of unified hearts desiring true revival in our Body of Christ and across America.

Evening worship services that began Thursday night quenched thirsty hearts with passionate praise and insightful teachings about the tests of life and living faith. Saturday's special sessions included an intimate Q&A with Dr. Harmon (only 4 Q's are shared on this page for those who missed) followed by an afternoon session where he shared his testimony.

The oneness of the intergenerational unity seen on opening night flowed throughout, ending with today's KM/EM joint service with Dr. Harmon's Lord's Day sermon titled "Why Does God Allow Me to Suffer?"



Dr. Jerry Harmon and ICCC EM engaged in deep theological dialogue.

Morning Q & A with Dr. Jerry Harmon even carried into the second session



Q: How can I be sure of my salvation?

A: It is through a desire in your heart to obey Jesus. 1 John 3 says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John says that you're a liar if you say you know Jesus but are not keeping His commands. John talks about the direction of life, not perfection. "Hereby we know that we know him" in the Greek present tense is a type of action rather than the English tense of time. The perfect tense in Greek is something that has already happened in the past with continuous results -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with effects still felt today - like 9/11 and today's security in airports. How do we

continually know that we know Jesus? If we keep Jesus' commandments.

Q: How can I know my current calling?

A: In order to know your calling, you must first give yourself fully to the Lord as a living sacrifice, true worshipper. Then make a sober evaluation of yourself: your desires and your gifting, and trust God to open up the right doors. Be careful not to think of yourself greater than you ought to but assess objectively what talents/gifting he has given you. Romans 12:1-3 tells us we do not get to choose our gifting but God gives and that our calling is in complete harmony according to it.

Q: Why doesn't God answer our prayers?

A: God answers prayers but not always with the answer we want. That is because He knows best. Thank God for unanswered prayers. The more we draw close to him, the more sanctified

we are in our lives. We must trust in his sovereign wisdom and His best for us. Continue to ask, seek and knock. Part of faith is learning to accept those answers from God. Unload your heart to Him, and pray until you are done unloading.

Q: Are people predestined for salvation?

This deals a lot with the idea of foreknowledge. There are two kinds of foreknowledge. One where God sees you in your future and He knows you are choosing God. And another where God chooses you himself. Many passages in the bible support that God is the one who is choosing us. Among the passages, Psalm 14:2-3 says that God looks throughout all mankind but He does not find any that seek or choose God. There is no one that chooses God on their own. We choose Him because He first chose us.

We also need to keep in mind that as there are those that are the elect, God also offers salvation to everyone.

■ 농장 피크닉

잘 익은 라즈베리 한 알 한 알 따며 즐거운 한때

6월 18일 토요일, 파스한 날 과일, 채소 따러 가본 적이 있나 싶은 때에 청년의 아이디어로 블루베리/라즈베리 피킹을 하러 가게 되었다.

관계 세미나 후 12시 무렵에 청년들과 함께 교회 근처 30분 거리에 있는 농장을 찾아갔다. 뜨뜻한 80도 정도의 내리쬐는 태양을 머리 위에 두고, 배고픔은 뒤로한 채 상큼한 과일을 맛있게 따먹는 상상을 하며 도착하였다.

입구 오른 쪽에는 직접 재배한 각종 과일과 채소들을 진열한 간이 스토어가 있었고, 왼쪽에는 작은 동물원처럼 알파카와 염소, 양, 닭들이 우리 안에서 방문객이 먹이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지나 안쪽 가운데에 매표소가 있어 입장료 \$3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안쪽 바로 옆으로는 열매를 따를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으며 종류별로 시세에 맞게 LBS 당 사갈 수 있게 해 놓았다.



생각과 다르게 곳곳에 숨어있는 라즈베리를 조심스레 따며 잎사귀를 들어 찾는 중에 그 옆으로 벌과 함께 대화(?)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지만, 많은 벌들로 인한



걱정과 달리, 각자 일하기 바빠 조심스레 따다 보면 어느새 벌은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땀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욱본다고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다.

라즈베리는 타이밍이 좋아 많이 따고 먹고 그랬지만, 다른 블루베리나 블랙베리들은 철이 아직 아니거나 많이 없어 구경만 하고 오게 되었다.

짧은 시간 청년들이 함께 했지만 사진 몇 장과 함께 우리 기억에는 오래 남을 것 같아 좋았다. 지나가고 나면 이 순간조차 더욱 아쉬울 법한 젊음의 시간들...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함께함이 더욱 좋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Somis Farm Center 주소: 5696 E. Los Angeles Ave, Somis, CA / 라즈베리 시즌: 6월~11월, 블루베리 시즌: 7월~11월 / 선블록, 선글라스, 모자는 필히 지참하세요.) | 안세진 성도 |

■ 독서토론 '우리... 사랑할까요?'

칭찬·장점 소개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

청년일대에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일까? 돈, 건강, 대인관계, 신앙, 커리어, 자기개발 등등 많은 것들 중에서 연애/결혼 혹은 사랑이 아닐까?

독서 토론의 주제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우리...사랑할까요?] 라는 책을 통해 청년들끼리 토론을 해보았다. 각 목장 별로 나뉘어져 나누었으며, 우리 목장은 시작을 서로 칭찬 릴레이로 해보았다. 서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들을 돌아가며 나누어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양한 매력과 달란트로 가득 채워 창조해 주셨으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게 하셨음을 나누어 보았다. 또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을 향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준비과정을 나누어 보았으며, 배우자 기도 방식을 공유한다거나 다른 도서 참고 사항도 나누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상처'가 아니었나 싶다. 책의 초반내용부터 돌보기를 대고 내 스스로를 들



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은? 단어... <상처>였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처를 시작으로 엄마와의 맺줄로부터 나누어지는 상처, 그리고 그간 살아온 인생길에서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인지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많은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지금껏 지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끝없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와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주제들, 깊고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도 있지만, 주 안에서 서로에 대한 틀림이 아닌 다름을 배우고 이해하며 준비하는 코람데오가 되었으면 한다. 돌아올 독서토론 또한 기대되며 더 많은 청년들과 나누며 알아가길 바라본다.

| 안세진 성도 |

■ 선교지 소식

'꿈의 축구장' 하나님의 손길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이 주인 되시어 늘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심을 느끼며, 동역자 여러분들로 인해 가슴 벅찬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선교지를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세네갈 선교지는 편안하고 안정적 정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Shell 주유소와 중저가 프랑스 계열 마트인 Auchan Supermarket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Open 하는 등, 의식주에 관한 생활 환경 인프라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날로 눈에 띄게 발전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 상승과 현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의 대규모 집회로 서민들의 불안감도 정서 밑자락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선한 역사인 꿈의 축구장 조성을 앞두고 먼저 실현되어야 할 우기철 대비 물 빠짐을 위한 하수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할 시청과 중국 계열 공사업체의 계약으로 하수관을 매설할 총 길이 약 1,200m 구간을 깊이 3m, 넓이 3m의 철근 콘크리트 벽을 군데군데 미리 제작하여 배치해놓고 나를 체계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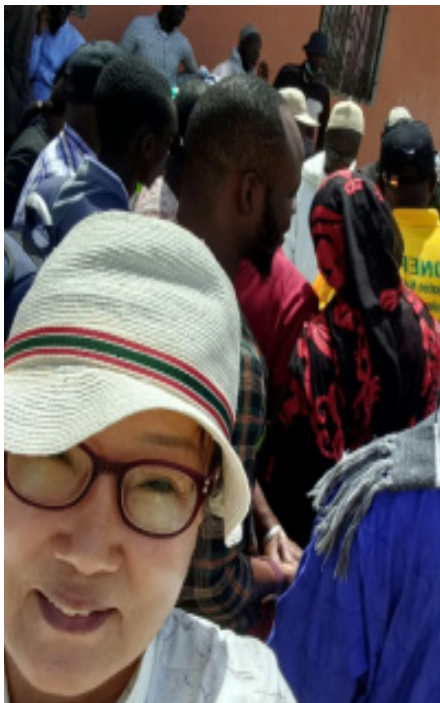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딜지라도 뒤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베푸시는 선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동역자 여러분의 깊은 기도와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사무쳤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의 헌신이 이루어낸 응답이라 여겨집니다.

Unite 9 마을 공동체 담당 사무실 직원 몇 분과 중국 업체 직원이 물에 잠긴 축구장 부지 주변의 항공 사진을 가져와서 하수관 매설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

체인 하나님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올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네갈
김승주 선교사
올림



■ 특별기고

소망의 힘

1950년대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Curt Richter(1894-1988) 교수는 '동물과 인간의 급사 현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8면에 불과한 짧은 그의 논문은 그 후 수십 년간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사육된 쥐들과 야생의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유리병에 물을 반쯤 채우고는 12마리의 사육된 쥐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쥐들이 수영하는 것을 단념하고 물에 빠져 죽는 시간을 알아보았다. 세마리의 쥐가 흥분하여 수영을 하다가 2분 후에 죽고 말았다. 흥미롭게도 나머지 9마리는 여러 시간 수영을 했다. 다음엔 수영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야생 쥐들을 실험하였다. 놀랍게도 모두가 물에 들어가서 몇분이 지나기도 전에 물에 빠져 죽었다. "왜 공격적이고 맹렬한 쥐들은 모두 물에 들어가자



마자 죽고, 사육된 쥐들은 적은 숫자만 죽었을까?"

이번에는 실험을 약간 변경하였다. 그는 쥐들을 병에 집어 넣었다가 그 쥐들이 죽어갈 무렵이면, 잠깐 꺼내어 주었다가 다시 물에 집어넣곤 하였다. "이렇게 하

자 쥐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일시적인 구제를 경험한 쥐들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영을 했고 더 오래 살아냈다. 그리고 그 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 쥐들이 자신의 운명이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난 후, 헤쳐나갈 길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엔가 도와줄 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 후에 - 그들이 수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그들은 수영을 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리히터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절망을 이기고 나면 그 쥐들은 죽지 않는다."

우리의 주변에는, 그리고 여러 수용시설에는 화와 분노로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그저 잠깐 숨돌릴 틈을 줄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망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생과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있다. 이 소망의 힘이 낙담과 고통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케 하며, 또 그 경험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다.

소망은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로부터 생겨난다. 우리들의 따뜻한 관심, 격려의 말 한마디, 부드러운 시선 하나가 사면이 꽉 막힌 어느 누군가에게는 숨돌릴 수 있는 틈이 될 것이다. 위로와 작은 도움의 몸짓 하나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망을 그에게 줄 것이다.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소망의 끈을 붙잡으라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전호선 장로 |

■ 마더와이즈 소감

나와 주님의 관계 바로 잡는 계기

마더 와이즈! 일단 책 제목을 봤을 때 '현명한 엄마'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책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을까? 라는 호기심과 아이들 세 명은 말씀으로 양육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 생길 손주를 생각하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어야겠다는 것과, 또한 주안에교회에서 실시하는 평신도 사역 훈련은 모두 참여하겠다는 저의 다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실 집사

그런데 막상 교재를 펼쳐보니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첫 주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이 제게 가득 채워지고 넘쳐 우리 가족에게 (자녀, 남편)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제게 주셨고, 저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를 사해주시고 그 분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머리모만 인지하고 가슴으로 완전히 받지 못하니 자녀 양육을 말씀 가운데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것(세상 욕심)에 집중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나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가치관과 의지로 움직여야 만족했고 제 말을 따르지 않거나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더 와이즈 교육내용은 '자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와 주님과 관계' '하나님과 주님과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육하는 내내 저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완전하신지, 부활의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지,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이 말씀에 따라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번 마더 와이즈를 하며 제게 주신 가장 큰 감동이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알았던 주님의 '권고'가 아닌 '명령'이었지만 크게 와닿지 않아 기도하기에 게으름을 피웠던 저를 회개하며 한 영혼까지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기도애 매진하였습니다.

■ 주안에말씀 소감

예수님 더 알기, 참 좋은 경건 훈련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통독을 하면서 점점 통독의 부담이 없어지고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늘 영의 양식을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을 입어야지 라는 부담에서 당연히 읽는 생활로 가는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이현주 집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23:3)"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다 라는 말씀처럼 연약해서 넘어지는 저를 말씀 앞에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육이 말씀 안에서 싸우며 말씀 앞에 내 육신을 복종하게 하는 고민과 단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한 경건의 삶이 이것이며, 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삶에서 넘어지는, 구원받은 자녀가 받아야 하는 최고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통독을 하면 할수록 끊이지 말아야 하며,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서신서를 읽으며 사도들의 전도, 복음 전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며 돌보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정 사랑이 아닐까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므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그 사랑(아가페)의 온도를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에 대해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면밀히 살피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주일 설교마다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바울 서신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느끼며, 진정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뜨거운 사랑이 없는지 회개하며, 동일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통독을 통해 또 다른 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2면서 계속〉 이것을 깨우치는 오부운 부총장님의 강의는 부드러운 표정 속에 감추어진 예리한 칼날이었다. 강의가 끝나면 6명의 리더가 각각 그룹을 인도하여 소그룹 훈련을 2번에 나누어 연습하게 했다. 말하며 울고, 들으며 울면서 공감하고, 서로 처음 만난 사이지만 상대의 진심을 찾아가며, 나는 감정에 더 숨겨둔 진실을 찾아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과정을 배웠다. 우리는 주안에교회의 평신도 사역에서 배운 것을 남에게 나눠 주어야 할 사명을 받은 수강생이 되었다.

오부운 부총장께서 주안에교회처럼 평신도 사역이 잘 이뤄진 교회가 드물다는 말씀과 함께 잘 배워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격려해 주셨다.



■ 실내 플랜트 기르기



'보는 즐거움, 쾌적한 방 안 공기'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기 좋은 장식으로 실내 식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내 식물을 키움으로 얻는 효과가 많은데 그 중 중요한 것 2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이 녹색 식물을 볼 때 감정을 순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예쁜 색깔의 꽃을 보면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음이온이나 피톤치드를 발산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둘째, 가정이나 사무실의 각종 가구나 벽지 카펫 페인트 등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켜 준다. 식물에 따라서 포름알데하이드나 벤젠같은 암을 유발하는 독성가스를 흡수하고, 미세 먼지나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산소를 배출해 공기를 정화한다.

미연방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 항공사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의 공기 정화를 연구하다 식물에 착안하고 연구한 결과 실내공기 정화에 효과가 많은 식물 50 종류를 추천했는데 그 중 기르기 쉽고 우리에게 친숙한 식물을 2가지씩 소개 하려 한다.

1. 죽 (Raphis Palm)

* 관음죽은 한국 일본 중국에 많이 분포돼 있고 NASA

추천 공기정화 식물 50가지 중 2번째로 추천된 식물인데 암모니아 가스와 탄산가스를 흡수하므로 화장실, 현관에 놓으면 효과적.

* 6~22C, 습도는 40~60% 정도 기후 적합, 남가주에 적합.

* 화분 흙은 물이 잘 빠지고 공기가 잘 통하는 토양이 좋음.

* 실내 어느 곳이나 줄이나 밝은 곳이 관리상 좋음 * 물은 화분 표면 흙이 1인치 정도 말랐을 때 주면 좋으므로 장소에 따라 처음 1~2주간은 촉정이 필요. 식물 비료를 3개월에 한 번씩 주고 물에 잎의 표면에 자주 스프레이 해 주면 잎이 늘 싱싱함.

2. (Peace Lily)

예쁜 잎과 그 사이로 핀 순백색의 꽃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 * NASA가 추천한 50가지 공기 정화 식물 중 10번째로 추천. *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암모니아, 아세톤 같은 유해가스 흡수 * 실내 중간 정도 밝기에 적합. 남가주 기후에 적합.

* 물은 주1회 정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식물비료.

* 흙은 보통 화분흙(Potting Soil)을 사용.

* 1년에 한 번씩 화분갈이 해 주면 좋음.

| 나형철 기자 |

■ 감사의 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고 인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먼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요한 새벽에 Youtube에 나오는 장로님 장례식 추모 video 를 보며 남편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중에 장례식 때 보내주신 많은 카드를 읽어보려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 과정에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아는 그를 누가 정말 깊이 알았을까요... 저는 39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가 무엇을 좋아 하는지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그를 슬프게 하고 또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했는지... 아마 부모님도 형제들도 모르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귀하게 되새깁니다.

그분은 지금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겠지요. 제가 그에게 제발 좀 쉬어가며 일하라고 바가지줄을 끊었는데 벌써 천국의 일도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은 그림지만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굳세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이가 원했을 거니까요. 내가 슬퍼하면 그 분도 슬퍼하겠지요.

우리 천천히... 만나서 우리가 알던 그 분을 기억하며 웃고 울고 커피 마셔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많이 감사드립니다.

| 이해령 권사 |



■ 주류교회 뉴스

'번영복음' 은 성경 왜곡이다

남침례교단 결의문 채택

미국 최대 기독교 교단인 남침례 교단이 '번영복음' (Prosperity Gospel)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단 차원에서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교단은 번영 복음이 예수의 희생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교단 측은 "번영 복음은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 속죄의 죽음이 교인들에게 건강과 물질적 부를 제공하는 한편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가르친다"라며 "이 같은 신학은 약자를 착취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인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고난의 성경적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단 측은 또 "기독교인은 잘못된 가르침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며 "양의 털을 쓴 거짓 선지자가 울부짖는 늑대처럼 성경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도 경고했다.

■ 음악 칼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추모 · 애도를 넘어 감정의 정화가...

레퀴엠(Requiem)이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례미사 집전 시 연주되는 전례(예배) 음악이다. 라틴어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레퀴엠의 정식 명칭은 '위령 미사곡'이지만 도입부의 가사가 Requiem으로 시작하여 통상 레퀴엠이라 부르고, 진혼곡, 위령곡 등으로도 불린다. 레퀴엠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정해진 가사와 형식을 엄격히 지켜왔고, 19세기부터는 예배용이 아닌 연주 목적으로도 작곡되며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전통적인 레퀴엠은 첫 도입 부분을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긍휼히 여김과 자비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Selig sind, die da Leid tragen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는 성경 말씀 가사로 시작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례에 대한 인식은 고인을 애도하고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독일 레퀴엠」을 작곡하며 영혼에 대해 기원하는 전통적인 추모의 방식 대신 고인과의 이별을 맞이한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했다.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끊임 없이 읽고 연구하던 브람스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개정한 1537년 판의 성경에서 가사를 인용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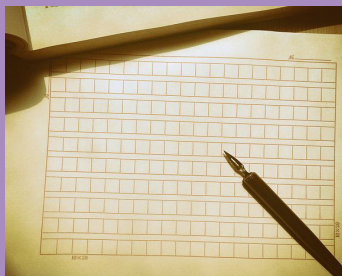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지 음악을 통해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야말로 영원한 기쁨과 승리가 보장된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형태의 죽음을 마주할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자 했다. 임종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주검 앞에 선 브람스는 슬픔을 이겨내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레퀴엠을 10여 년 만에 완성시켰다.

죽음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소중한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 갑작스런 상실로 인한 혼란은 높은 확률로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절망감이 정점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해소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통해 고인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브람스가 「독일레퀴엠」에 담아낸 깊은 묵상은, 애도를 존중하는 정서적 지지이자 감정을 정화하는 섬세한 위로이다.

| 황성남 기자 |

■ 주안에 한가족

모국 생활 3년 교우들 생각에 눈물 '핑'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선희, 나형철, 류영수, 모니카 김,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주안에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힘이 돼주시고 보듬어 주시던 최혁 목사님과 친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벅 차오르는 감격을 느낍니다.

13년의 기간을 어린 딸아이와 둘이 타지에서 보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넘었고 이제는 연세드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런던에서 한 달 보름의 일정으로 이 곳에 유학와서 공부 중인 딸아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 딸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영국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곁에 있음으로 편안하고 쉽이 될 수 있는 엄마로서 변화되고 새로움을 입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넘어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안에교회 성도들에게 저의 삶의 나눔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편지가 되길 바라는 소원과 공동체 식구들을 위한 그리움을 전합니다.

| 김명자 권사 |